

4. 성경 예언의 초점 (두 번째 시간)

2012. 1. 22.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예언의 초점을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성경 예언의 초점으로서 창3:15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냥 다른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까? 예언을 읽는 사람들이 그 뜻을 분명히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답: 그런 질문도 할 만하지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전제(前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창조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지요. 아담은 남자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생기가 남자를 통하여 들어가게 한 것이지요. 이것은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을 남자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을 하실 때 아직 여자는 창조되지 않았지요. 여자를 창조하기도 전에 왜 남자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남자에게 생명의 씨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시키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생명을 맡겼으니 그 생명의 씨를 잘 지켜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서 이런 생명체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결국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것입니다. 바울은 고전 11:8에서 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래서 행17:26에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지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를 맡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의 씨가 죽은 씨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썩어질 씨”입니다.(벧전1:23) 남자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씨는 다 썩어질 씨입니다. 그 씨로 태어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요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의 생명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체라고 가르칩니다.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살을 뜻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뜻도 있지만, 육체에 속하였다든지, 육이 되었다는 말은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예가 가장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뱀 곧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패

배시키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육체가 된 아담의 썩어질 씨로 태어나는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사형수이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줄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곧 남자에게 있는 썩어질 씨가 아닌 참 생명의 씨를 여자를 통하여 탄생하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후손이라는 히브리어 “제라흐”는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 사단을 멸할 구주가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여자에게는 생명의 씨를 주지 않았지요. 남자인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토이 되게 했지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씨가 사망의 씨가 되었고 썩어질 씨가 된 것입니다. 그 씨로는 다 죽어 없어지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지요. 생명의 씨가 아니라 사망의 씨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망을 처리해야 합니다. 첫 아담을 대신하여 다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첫 아담 대신에 그 사망을 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하려면 대속할 자격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아담의 씨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이미 아담 안에서 사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을 대신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야 사망을 대신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는 사망의 씨가 아닌 아담과 상관없는 한 생명 자체인 씨로 아담을 대속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순결한 여자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의 씨가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에 대 개념으로 여자의 씨라고 하였고 그 여자가 순결한 처녀여야 한다는 것은 오랜 세월 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사 7:14에 그렇게 계시했지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성경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순결한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2. 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의 뜻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답: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소비하는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지되는 생명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창6:3은 이 사실의 실마리를 계시합니다. 한 번 읽어보지요.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창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됴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육체가 됴이라는 단어에는 난외에 주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육체이므로 범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 난외에는 “범과함으로 육체에 속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난외주에 있는 것처럼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인데, 옛날 번역 난외주가 성경 전체의 사상과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인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된 사실을 가리키는 계시이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이야기 인데, 원어에서 “이는”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가

에 따라 이해가 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이라고 번역된 말이 “배사감(배사감)”인데 이 단어가 “이는”이라는 뜻의 “감(감)”이냐, 아니면, “범죄하다”라는 말인 “샤가그(샤가그)”의 3인칭 복수 남성 부정사인 “샤감(샤감)”이냐 하는데서 번역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 성경 구역이나 개역은 본문을 “감”이라는 뜻으로 번역하였고, “샤가그”의 뜻을 난외에 주로 달아 놓은 것이지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저로서는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봐서 “샤가그”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청자들 중에 혹시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까 해서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진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네 번 나타납니다. 레17:11,14 민16:22, 27:16 등입니다. 레위기17:11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14절에도 육체의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생명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살아가는 것이 곧 죽어가는 것인 줄은 다 알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의 죽을 때까지의 사람의 생명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육체뿐이라고 했습니다. 시78:39에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3. 목사님,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되었지만 사형 집행을 일정기간 연기하시고 그 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답: 그렇지요. 그렇게 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육체뿐인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세상에서 누리는 기회입니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시간의 본질을 알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이 구원의 경륜을 떠나서 시간의 본질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것은 구원받을 날, 또는 은혜 받을 때라고 합니다. 고후6:1,2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이 때가 주어져 있는데, 바로 시간이지요. 육체의 생명을 소유하고 맑은 정신이 있을 동안 현재의 인간의 실상을 정직하게 깨달아 알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람에게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에게는 시간이 없지요. 시간은 세상의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들 개개의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의식하는 존재가 없어지면 시간은 무의미합니다. 지금 아직도 숨 쉬고, 맑은 정신이 있을 동안 구원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육체의 생명이 끊어질 때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그 후에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있는 기간이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육체의 생명의 기간은 정말 유일한 기회이고 그것이 각 개인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주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의 표지입니다. 시간을 구원을 위하여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시간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해도 이미 다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사마의 씨, 썩어질 씨로 생

육하고 번성하는데, 그것이 처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육과 번성은 고통만 낳는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답: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과 일치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씨, 썩어질 씨로 태어나서 각 개인에게 허락된 시간, 곧 은혜의 기간 동안 구주를 믿고 거듭나면 그것이 곧 처음 창조된 아담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충만하게 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은 사람이 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계시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사45:18] 여호와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보니까 땅에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땅을 창조한 것이 헛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거해야 합니다. 구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4. 아, 그렇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시고 창조의 본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첫 아담을 없애고 흙으로 다른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첫 아담을 구원하셔서 처음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군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첫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다 사망으로 태어나도, 여자의 후손, 즉 첫 아담에게서부터 나오지 않는 다른 한 새 생명으로 세상에 나게 하시고 그가 첫 아담의 사망을 대신 당하셔서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셔서 그분을 믿을 때 처음 창조된 상태로 회복되게 하시는군요.

답: 예, 목사님이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손이 아니고 바로 첫 아담과 그의 후손들 중에서 땅에 충만한 만큼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아담부터 세상 끝 날까지 아담의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수와 비교할 때 적은 무리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땅에 충만하게 된 수이니, 상대적으로 적은 무리이지 구원받는 사람만 말한다면 적지 않을 것입니다.

4. 그런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한 위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천사나 다른 어떤 죄와 상관없는 피조물 중에 누군가 오면 안 됩니까? 구차스럽게 하나님이신 분이 꼭 그렇게 오셔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답: 참 쉽지 않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가장 단순하게 대답한다면 구원은 창조입니다. 창조는 창조주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성경은 구원받은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고, (고후5:17)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고 합니다.(엡 4:23,24) 그러니까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누가 하겠습니까. 천사를 포함하여 어떤 피조물도 창조에 가담하지 못합니다. 창조는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시는 분 외에는 결코 어떤 누구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창조주만 합니다. 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생명이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지요. 이런 것은 모두 창조주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8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사45:8]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과 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외에는 구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다 이야기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5. 다른 무슨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보시지요. 오늘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이야기 하면 되겠지요.

답: 그 이야기는 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성경 예언의 초점에 대한 사실을 마무리하지요. 성경의 초점, 모든 예언적 기록에도 해당되는 초점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아담은 자기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그의 후손에게 결코 물려줄 수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존재는 불가능하지요. 이미 아담의 생명은 썩어질 씨이며, 사망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상관없는 한 생명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씨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초점으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사실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계획을 읽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처음 창조 당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그곳에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구주와 그 구주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 이야기가 초점입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낸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단언합니다. 요일4:9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확실히 깨닫고 이 생명의 구주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연구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주제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로 판단하기보다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생명 있는 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요일5:11,12에 확인했습니다. 아무쪼록 애청자들께서 이 생명을 소유하시고 산 자로서 산 자의 하나님과 기쁜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사망이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구주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사망을 처리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드러내어서 우리로 구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받은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